



[산업]
걸을수록 통신비 할인
6개월간 최대 7만2천원
“건강습관 유도”
05



[라이프]
호텔업계 가을맞이
쉐라톤·켄싱턴 등
패키지 ‘풍성’
L6



“日잔재 없애야” vs “아픈상처 되풀이 않도록 보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궁 내 방공호

태평양전쟁때 일본이 세운 잔해 ‘철거 vs 보존’ 주장 논란 계속돼 임시개방으로 신청땀 관람기회



경희궁 방공호 전경. /서울시

일제가 태평양전쟁 당시 연합군의 공습에 대비해 세운 방공호의 폐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방공호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를 보존해 다크헤리티지(부정적 문화유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공호는 전쟁 때 통신시설을 갖춘 전사령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졌

다. 길이 100m, 폭 7m, 높이 5m 규모의 2층짜리 터널식 구조인 이 방공호 내부에는 20여 개의 크고 작은 방들이 들어서 있다. 건물 외벽은 3m 두께의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외부 폭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방공호는 지난 2002년 식민시대 잔재를 궁궐 한복판에 남길 수 없다는 여론과 경희궁 3차 복원계획에 따라 철거가 추진됐다. 공사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무한정 연기됐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15일 “경희궁 방공호는 역사적으로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일제 침략의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지역 문화재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경희궁 방공호는 임시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박물관에 신청하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시시설로 사용하려면 용도를 변경해 대피시설 등을 개축해야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행정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전면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상암2지구 개발사업 중 발견한 일본군 장교관사와 방공호는 2010년 복원 이후 친박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SH공사는 2005년 마포구 상암 2택지 개발지구 조사 과정 중 일본군 관사로 추정되는 건물 22개 동을 발견했다. 문화재청과 SH공사는 일제의 아시아 침략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써 일본군 관사의

보존 가치를 인정해 건물 2개 동과 방공호 1기를 복원, 문화재등록을 추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상암 월드컵파크 지역 주민들은 “치욕스러운 역사의 흔적을 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하지 말라”며 반대했다. 결국 문화재 등록은 무산됐고, 10억원을 넘게 들여 복원한 유적은 현재까지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정성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방공호 복원·보존은 지역의 문맥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의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존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삶의 방향 찾는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서울시, 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
29세미만 미취업청년 신청 접수



서울시는 청년들이 학업과 직무를 잠시 중단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인 ‘갭이어(Gap year)’를 주는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구직 활동에 몰려 자아 탐색과 주제적으로 삶을 설계할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진로 모색 프로그램이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9~12월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학교, 청년교류공간 등에서 진행된다. 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강

29세(1989~1999년 출생자) 미취업 청년이다. 모집 기간은 17~27일이며,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 200명 중 140명은 일반 모집한다. 나머지 60명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우선 선발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서울시 청년들이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 삶의 방향을 찾는 시간”이라며 “본 프로그램이 든든한 지지자를 만나고 인생을 주제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주민 1천명 '한반도 평화' 합창

제73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송파구민 1천여명으로 이뤄진 합창단이 대형 한반도기를 펼쳐놓고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주 수요일 ‘공원·조경’ 무료 인문학 강의

보라매공원서 명예교수 5명 재능봉사

보라매공원에서 공원과 조경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무료로 열린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재단법인 환경조경나눔연구원과 함께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보라매공원에서 ‘공원문화 아카데미’를 8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원문화아카데미’는 국내 대학 조경 관련 학과에서 후학들을 가르쳐 온 다섯 명의 명예교수들의 재능봉사로 진행된다

다. 아카데미는 공원과 가드닝에 대한 주제를 석학들의 풍부한 연륜과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매 강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여 90분간 각 주제별 강의와 질의 응답으로 구성된다. 서울대학교 임승빈 명예교수가 ‘공원과 행복한 도시’라는 주제로 도시인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원에 대하여 서울과 외국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참여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한강 어류 모니터링 모습. /서울시

‘자연성 회복’ 한강서 보호어종 2종 발견

한강에서 강주걱양태와 꺾정이가 발견됐다.

서울시는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을 완료한 이촌한강공원에서 서울시 보호어종인 강주걱양태와 꺾정이를 관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야생생물 중 학술적·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생물 49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이촌한강공원지킴이’는 지난 4일

한강 어류 모니터링을 진행해 서울시 보호종 어류인 강주걱양태 16마리와 꺾정이 1마리를 발견했다.

보호 어종이 발견된 장소는 한강자연형호안 조성사업을 실시한 곳으로 자갈과 모래 등이 퇴적돼 어류들이 서식하기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강주걱양태와 꺾정이의 발견은 한강이 자연 그대로의 하천 식생으로 복원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걷기·자전거 페스티벌 내달 30일 광화문광장 출발

자동차의 전유물이던 서울 도심에서 걷기(걷기·자전거) 페스티벌이 열린다. 서울시는 9월 30일 ‘2018 서울 걷기·자전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남산3호터널을 지나 반포한강공원에 도착하게 된다. 행사 당일 오전 8시 자전거 행렬이 먼저 광화문광장을 출발하면, 걷기 행렬이 이를 뒤따른다.

걷기 참가자는 광화문광장~남산3호터널~잠수교~반포한강공원의 7.6km 코스를 이동한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광화문광장~남산3호터널~반포대교~서초3동사거리~반포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15km 구간을 달리게 된다. 올해에는 걷기·자전거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녹색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퍼스널 모빌리티 부문 참가자도 모집한다.

시는 걷기 1만명, 자전거 4800명, 퍼스널 모빌리티 200명 등 총 1만5000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2018 서울 걷기·자전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김현정 기자